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 인터뷰 질문지 _ 글로벌케어 박세업 외과의사

(의협신문 및 사보보령에 게재됩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민국에 밝고 건전한 의료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보령제약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1985년 제정하여 벌써 3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의료인 한 분을 수상자로 선정, 취재하고 사보와 의협신문에 게재하여 참된 의료인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1. 36년째를 맞고 있는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보령의료봉사상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령의료봉사상을 통해 국내외 의료인, 의료기관들이 선행과 의료라는 전문성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이런 좋은 영향력이 복잡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속에서도 차세대에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글로벌케어 박용준대표께서 16년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을 통하여 보령의료봉사상의 건전한 의료풍토를 세우는데 선도하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상에 제가 본상의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전의 수상자들 보면 훌륭하고 수상 받기에 당연한 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분한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일에 함께 하였던 사람들을 대표하여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의료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언제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88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초년생으로 응급실 인턴을 하였던 시절은 전국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매일 피를 토하고 응급실을 방문하지만 입원비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자금을 만들어 가난한 결핵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기회가 되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환자들에게 의료와 봉사라는 것을 실천하였고, 1998년 베트남

남딘성에 단기의료팀(성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마취과등)의 일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를 계기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료봉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매달 한번씩 국내의료봉사와 일년에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하던 중, 2001년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병원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여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과의사라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개인의원을 접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아프간 현지 의사들을 교육시키로 또 수술을 통해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가 아닌 팀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2011년에 미국 Johns Hopkins에서 국제보건석사를 나이 50세라는 젊지 않는 나이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012년부터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 본부장으로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서 결핵보건, 모성보건, 학교보건, 저소득층 의료지원 그리고 영양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개원하시는 중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기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시다가, 2005년부터 해외로 건너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외과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보아왔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35세 되는 나이에 저의 어머니가 뇌악성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인생은 정말 한번 밖에 없는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좀더 의미있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지내면서 일상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또 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시골과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가운데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남은 인생의 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전쟁과 가난으로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의 삶을 접고 해외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모로코, 모리타니아, 아프가니스탄, 가나, 에티오피아,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봉사활동의 대상을 선정하는 나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약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에 기회가 있으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월남전쟁으로 구개열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전쟁가운데 외과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분의 권유로, 에티오피아는 영양부족인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영양공급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는 많은 결핵환자가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읽고 기꺼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18년을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생긴 기준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의료라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의 경우 심한 빈부의 격차와 절대빈곤으로 의료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지만, 프랑스권의 국가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서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와서 돕는 의료인들도 턱없이 적은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 문화속에 적응하는 능력도 개발되어 특히나 여러 언어를 익히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두려움이 줄고,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아무래도 다른 젊은 의료봉사자들이 자녀교육문제나 언어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이 제가 해외 봉사현장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5. 원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돌아보는 활동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처음 글로벌케어에 몸담아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교 교장선생님 이셨던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성경의 가르침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고등학생 때 부터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국내 여러 기관을 통해 의료봉사를 하다가, 200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큐어 카불인터네셔널 NGO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일하고 난 뒤, 2007년부터는 바그람 미군부대내 (Bagram Air Field)에 있는 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병원장을 하였습니다. 그 때 코이카와 관계를 맺고 국제보건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현지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사회에서의 전염성질환 및 모성보건영역에서의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1년에 미국에서 국제보건을 공부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에 결핵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한 한국 NGO인 글로벌케어는 한국에서 의료전문보건기관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국내외의료지원사업에 관심이 있고 제가 추구하는 지역중심의 일차보건의료(Community-based primary health care)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몸담게 되고 현재 북아프리카에서 글로벌케어의 이름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의료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지요?

가장 기억에 남은 환자는 모로코에서 결핵에 걸려 희망을 상실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스마트약상자를 이용한 결핵퇴치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자카리아라는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던 쪽방에서 처음 결핵치료를 위해 만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잘 생겼지만 집안은 너무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섰지만 너무 낮은 임금과 주변으로부터 받는 무시와 차가운 시선들, 그런 가운데 결핵마저 걸려 일터에서 쫓겨나 마음속에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타오르는 그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결핵약을 잘 먹어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내면의 깊은 병들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차를 마시고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길을 따라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결핵 사업에 스텝으로 일하면서 앞으로 모로코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자하는 사회봉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않는 프로젝트로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의 현지 의료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입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이름도 몰랐던 아프가니스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우리나라의 1950년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카불에서 좀 떨어진 미군기지내 한국병원에서의 생활은 실제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헬기 소리, 고막이 터질듯한 전투기의 이륙 소리와 작전을 끝내고 착륙 직전 남은 로켓을 앞산에서 쏘아 터뜨리는 폭음,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면서 그 땅의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한국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역할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복구팀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활동 및 대민 진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대의 망루에 올라가서 철조망 밖에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온 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며 다 진료를 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내야만 하는 현실가운데서, 현지 의료인들이 현지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릴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내 있는 병원과 이집트병원과 협력하여 지역내의 의료 인력에게 내시경, 초음파 그리고 필수적인 수술을 가르치는 인턴쉽과 on-job training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지 의료인력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참석하였던 의사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훌륭한 외과의사로, 내과의사로 남아 소식을 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7. 외과의사이자, 의료행정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해외에서 더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의료행정가로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과의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여 왔고, 국제보건전문가로서는 결핵, 영양부족 그리고 모성보건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예방, 치료 및 재활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이라는 실현가능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의 요소중 하나는 정해놓은 수혜자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행하여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과 개발의 접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능이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개인의 의미있는 삶의 변화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전인적인 변혁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의료활동은 외치는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HO 헌장은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병과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접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외과의사로서 그리고 국제보건가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이타적인 희생입니다.

8. 봉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떨 때 가장 힘드신지, 어떻게 위안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사를 지속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의 원동력을 말하자면, 청소년시절 모교인 브니엘 고등학교 교훈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훈은 특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마음껏 자라며 마음껏 생각하며 마음껏 일하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련다.
나는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기대하였던 결과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서 이제는 그 정도하면 되었다고 가족도 생각하고 노후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가까운 분들의 관심있는 조언을 접할 때 간혹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의료 봉사자의 삶의 여정가운데 보게 되는 성공이나, 내가 느끼는 삶의 보람보다는 함께 하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 때 마다 전적으로 믿고, 내가 의료인이기에 놓치는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고 따라온 아내와 환경이 다른 곳으로 자주 옮기면서 학업을 마치고 아빠가 있는 모로코에 와서 같이 일하며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동참하였던 아들들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배가 되고, 힘듦이 있을 때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의료봉사자의 길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쁨이 있는 길이라고 고백이 됩니다.

9.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꿈꾸셨나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특별히 의사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고아원과 양로원같은 시설을 방문하면서 막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 “의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지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일반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과의사로서 긴급한 수술의 현장에서 그리고 국제보건가로서 지역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수술을 하고 난 뒤 합병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며칠을 잠을 자지 못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었고 기적적으로 삶을 회복하는 일도 있어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들의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고 높은 것 같습니다. 돈 잘 벌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의사들이 있는 반면 사회 어두운 곳을 돌아보고 헌신하시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선배 의사로서, 다른 많은 후배 의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평소 의사로서 가지고 계신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시대는 의료인이라는 것만으로 희생을 강요받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책무감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융합의학, AI의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한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그리고 공공의료로서의 사회적 측면의 의료분야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후배의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는 의료인으로서의 철학은 역시 1948년에 만들어진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꼭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으로 이타주의적 의료 윤리는 단순히 환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철학입니다.

11. 의료봉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도 궁금합니다.

첫째로는 지금 일하고 있는 북서아프리카에서 지역 의료전문가로 현장에 오랫동안

안 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내, 해외에서 의료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외부인 (out-sider)으로서가 아닌, 내부자 (In-sider)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지 환자와 현지의료인들의 필요 (Real need)을 발견하여 협력할 수 있는 한국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제 한국 의료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여러 분야에서 선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자금의 증가하고 있고, 그 에따라 다양한 의료 활동과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서의 경험의 기록을 담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현장에 남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하고 있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정말 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나 모리타니아는 절대 빈곤이 있는 지역으로 아동들의 2/3가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병원은 물론이고 아직 제대로 된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어 의료인들의 훈련과 함께 기초적인 의료적인 지원의 절실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결핵퇴치사업과 영양지원과 함께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과대학 내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의료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봐 왔던 좋은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12. 그밖에 지면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너의 꿈이 뭐지?”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자’였습니다. TV도 인터넷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 에디슨과 라이트 형제등의 전기집을 읽으면서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1963년 8월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자유를 갈급하는 군중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나의 꿈은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 때문에 판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날(one day)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하게 됩니다. 그가 단지 대통령이 되어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꿈이 언제 이루어

어질지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해 가겠다는 의미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 연설 문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꿈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직업이나 사회속에서의 추구하는 신분이 되고자 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망하는 것을 같이 바라며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던 소년은 외과의사가 되고 느즈막히 보건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꿈에 정의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성취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내가 가진 꿈은 변하지도 않고 바래지도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50대 후반이 된 지금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의 눈물이 소망의 웃음으로 바뀌는 그날 (one day)이 오기를, 그리고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몸과 마음에 깊은 아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